

## 모순된 조건과 한계극복 차원에서 이뤄져야 - 진정한 남북음악교류를 위하여

민경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culture | art

최근 들어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에 비례하여 문화예술교류도 활발해졌고, 기대치도 높아 가고 있다. 반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문화예술교류에 관해 부정적인 시각을 표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새삼 우리들로 하여금 남북문화예술교류를 왜 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이다.

### 남북음악교류의 원칙

남북 분단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남북문화예술교류의 역할과 중요성을 묻는다면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들어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에 비례하여 문화예술교류도 활발해졌고, 기대치도 높아 가고 있다. 그런 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문화예술교류에 관해 부정적인 시각을 표하는 사람도 늘고 있고 우려의 소리도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현실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새삼 우리들로 하여금 남북문화예술교류를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진정한 교류란 무엇인가 등 원론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음악교류를 포함한 남북 문화예술교류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족화합이고, 근본적인 정신은 문화예술의 교류를 통해 분단으로 말미암은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의 미래지향적인 동질성을 느끼게 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고 또 통일에 대한 가능성과 함께 희망을 심어주는데 그 참뜻이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 교류는 그 매체가 갖는 정서적인 힘 때문에 체제나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민족의 심성을 바르게 이해시켜 줄 뿐 아니라 한민족의 원형적인 정서를 깨우쳐 주고 나아가 민족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순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남북 음악교류가 바람직하게 되려면 우선 남북한은 공히 서로를 적대적인 대결의 상대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정의 자세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민족 심상의 맥이 닿는 고전이나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동질성 회복의 차원과 미래지향적인 화합의 차원에서 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래야

문화예술 교류는 그 매체가 갖는 정서적인 힘 때문에 체제나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민족의 심성을 바르게 이해시켜 줄 뿐 아니라 민족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Unification

만 의미를 가질 것이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음악교류는 정치적이 아니어야 하면서도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 우선주의에서 차츰 문화 우선주의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첫째 상호 신뢰와 인정의 원칙, 둘째 미래 지향적인 민족 동질성 회복의 원칙, 셋째 화합의 원칙, 넷째 문화 우선주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성의 원칙도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음악교류는 모순된 조건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생각 수밖에 없는 한계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정치적이 아니어야 하면서도 정치에 예속 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호주의 원칙이 중요시되어야 하지만 기계적 상호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과의 한계,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현실 속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건, 이질화 속에서 동질화를 꾀해야 한다는 점,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리고 민족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퍼토리가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되며 전통음악으로만 국한시켜도 안 되고, 현대음악으로만 구성해서도 안 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교류에는 상대가 있는 만큼 북한측의 태도와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에 따라 교류의 성격이나 폭이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남쪽의 조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무엇보다 남북 화해라는 미명아래에서 남남(南南)갈등을 야기 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남북 화해 시대에 걸맞게 법적·제도적 장치도 정비해야 하며, 상업주의와 한탕주의가 뒤엉켜 무분별하게 진행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북문화예술교류는 이러한 모순된 조건과 한계를 해결시켜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6·15선언 이전의 남북음악교류

앞으로 있을 남북문화예술교류가 바람직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진행된 교류의 면면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초의 남북 음악교류는, 1985년 9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서울의 국립극장과 평양의 평양대극장에서 개최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예술단 교환공연>이었다. 분단된 지 3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을 근거로 하였으며, 남북합의에 의하여 정치성을 배제하고 상대방을 비방·중상·자극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 북측의 공연 내용은 북한식 민족무용과 민족음악이 중심이었던 것에 비해 남측의 공연 내용은 전통무용과 전통음악을 비롯하여 가곡, 대중가요, 재담, 현대무용 등 다양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이 공연은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상호 교환방문 음악회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분단 후 남북한 사람들이 동시에 상대방의 음악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뜻 깊은 행사였다. 그러나 남북 화합과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분단 후 이질화된 모습만을 확인시켜 준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공연이 끝난 후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의 음악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고 비난을 하였고,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의 음악은 국적불명의 퇴폐적인 음악”이라고

비난을 하였다. 분단 이후 서로 변화된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 준 공연이었으며,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보다는 대결 이데올로기적인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문화적 충돌과 그에 따른 문화적 쇼크를 야기 시킨 공연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교류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90년 10월 18일과 23일 사이에 평양에서 개최가 되었다. 제1회 범민족 통일음악회가 그것인데, 고 윤이상 선생이 위원장으로 있던 '범민족 통일음악회 준비위원회'의 초청이라는 성격을 띠었으며, 남북한 및 해외의 동포들로 구성된 14개의 단체가 참가하였다. 남측에서는 황병기 교수를 비롯한 14명으로 구성된 '서울 전통음악 연주단'과 취재진 3명이 참가하였으며, 공연 내용은 전통음악과 창작 국악곡을 중심으로 하였다. 세 번째 교류는, 1990년 12월 9일과 10일 사이에 서울에서 개최된 <90 송년 통일전통음악회>이다. 이는 평양에서 개최된 <제1회 범민족 통일음악회>에 남한의 음악인들이 초청된 것에 대한 답례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남북한 합동공연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남측에서는 국립국악원 정악연주단 등이 참가를 하였고, 북측에서는 평양민족음악단이 참가하여 민요를 중심으로 공연을 가졌다.

두 번째 교류인 <제1회 범민족 통일음악회>와 세 번째 교류인 <90 송년 통일전통음악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첫 번째 교류인 85년도의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예술단 교환 공연>과 다르며 또한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우선 85년도 교류와 90년도 교류의 차이점 중 가장 큰 것은 '국내의 정치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소련의 개방 개혁 정책으로 말미암아 탈냉전 체제로 바뀌기 시작하였고,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한국과의 수교가 이어졌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북방외교 정책과 남북고위급회담 등으로 말미암아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기 시작하였다. 즉, 남북교류를 통하여 정치적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정치적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교류를 하게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85년도 교류와 90년도 교류와의 차이는,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였다는 점, 동시에 거행된 것이 아니라 먼저 방문 공연을 하였고, 얼마 후 답방 공연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대중가요와 가곡 등과 같은

양악류의 음악을 배제하고 전통음악과 전통무용을 중심 레퍼토리로 했다는 점, 배타적인 시각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시각으로 변화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사항은 '시각의 변화'이다. 85년 교류는 상호 비난과 비방 일색이었지만, 90년도 교류에 관한 반응과 평은 상대의 문화예술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역력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촉발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그 이면에는 앞에서 언급한 '정치 환경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었다. 결국 남북예술교류는 정치에 예속되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정치가 잘 되어야 그 교류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한계와 교훈을 남겼다.

그 외 6·15선언 이전에 진행된 남북예술교류로는, 1998년 5월 2일에서 1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리틀엔젤스 예술단 평양공연>과 1998년 11월 3일에서 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1회 윤이상 통일음악회>, 1999년 12월 15일 평양에서 개최된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 1999년 12월 20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1회 민족통일음악회> 그리고 2000년 5월 24일에서 3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 등이 있었다.

## 6·15선언 이후의 남북음악교류

2000년 6·15선언 이후 지난 5년 간의 남북문화예술교류는 남북 분단 이후부터 6·15선언이 있을 때까지 50년 간의 교류보다도 양적인 면에서 많아졌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다양해졌으며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크게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6·15선언 이후 대표적인 교류로는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서울 공연과 KBS 교향악단의 평양공연을 들 수 있다. KBS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성사가 되었는데, 먼저 조선국립교향악단이 2000년 8월 18일에서 24일 사이에 서울에서 총 4차례의 공연을 가졌으며, 이에 대한 화답의 형식으로 2002년 9월 16일에서 22일 사이에 KBS 교향악단이 평양에서 공연을 가졌다.

이 공연은 6·15선언 이후에 조성된 남북 화합이라는 분위기에 힘입어 많은 기대를 갖게 해주었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한 공연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북갈등의 시대에서 남북화합의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상징적인 교류였으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남

넓은 의미의 교류란 '서로 섞이는 것'이다. 따라서 교류의 정신과 목표·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실험 연주회적인 성격을 띤 교류만 교류가 아니라 남북이 서로 섞이는 넓은 의미의 교류로 그 개념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 Cultural Exchange

북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공연이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규모 면에서도 내한한 북측 예술단의 인원이 132명, 방북예술단의 인원이 166명에 이르는 등 역사상 가장 컸으며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였다는 점, 남북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이 처음으로 같은 무대에서 같은 레퍼토리로 합동연주회를 개최했다는 점, 역시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한이 텔레비전을 통해 동시에 생중계를 통해 방영했다는 점 등 많은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기능에 못지 않게 풀어야 할 숙제도 동시에 제공해 준 교류였다. 먼저 남북교류의 반작용으로 등장한 남남갈등의 문제와, 북한문화 유입에 대한 저항감을 갖고 있는 일부 계층에 대한 이해와 설득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경제 지원의 문제와, 교류를 경제지원과 연계시키려는 북측의 입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서울 공연에서 보여 준 적절치 못한 레퍼토리(한국전쟁 때 인민군의 정서를 노래한 곡)와 남측 교향악단의 외국 곡 중심의 레퍼토리 문제 등은 오히려 교류의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남겨 하였다.

### 잇따라 개최된 특별공연들

KBS의 뒤를 이어 MBC는 2002년 9월 27일과 29일 양일간 평양에서 <2002 MBC평양특별공연>을 개최하였다. 첫날은 '이미자의 평양 동백아가씨'라는 타이틀을 걸고 1부에서는 <동백아가씨> 등 자신의 히트곡과 <애수의 소아곡>, <눈물 젖은 두만강> 등 해방 이전의 대중가요를 불렀고, 2부에서는 <성불사의 밤>, <몽금포타령> 등 북한을 배

경으로 한 가곡, 민요, 대중가요를 비롯하여 북한의 노래인 <다시 만납시다>를 부르기도 하였다. 둘째 날은 '오! 통일 코리아'라는 타이틀을 걸고 대중가요 가수 최진희, 테너 임응균과 록 가수 윤도현 등이 대중가요와 가곡, 민요 등을 불렀는데, 특히 윤도현 밴드가 월드컵 응원가인 <오! 필승 코리아>를 개사한 <오! 통일 코리아>와 록버전으로 편곡한 <아리랑>을 연주해 주목을 끌었다. 이 공연은 부산아시아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민족의 화해·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고, 북측의 인민배우과 공훈배우도 출연을 하였으며, MBC와 조선중앙텔레비전이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해 남북한에 동시에 방송을 하였다.

<2002 MBC평양특별공연>은 합동공연·합동제작·남북공동방송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교류의 레퍼토리를, 북한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록음악에 이르기까지 확대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공연을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편집하여 방송했는지, 그 반응은 어떠한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음악을 변화시키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3년 8월에는 KBS가 광복절 특집으로 <평양 노래자랑>을 개최하였다. 원로 코미디언 송해 씨와 북측의 여성 방송인의 사회로 평양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11세의 어린아이부터 77세의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20여 명의 북한 사람이 출연하여 민요, 동요, 가곡을 비롯하여 북한의 대중가요라고 말할 수 있는 생활가요 등을 불렀다.

<2002 MBC평양특별공연>이 남측의 대중가요를 북측의 안방에 전달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KBS



2002 MBC 평양특별공연 모습

가 주최한 <평양 노래자랑>은 북한의 노래를 남측의 안방에 전달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두 행사 모두 남북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이 되었기 때문이다. 남한의 노래가 북한의 안방에서 방영이 되고, 북한의 노래가 남한의 안방에서 방영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외의 주요 행사를 살펴보면, 2001년 2월 1일에는 남원시 춘향문화선양회 주최로 평양에서 창극 <춘향전>의 공연이 있었고, 2001년 4월과 2003년 4월에는 <김연자 평양공연>이 두 차례 있었는데, 김연자의 공연은 북한 전역에 텔레비전으로 녹화 방송 되어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2001년 6월에는 KBS가 북에 가서 제작한 '남과 북, 함께 부르는 노래'가 남에서 방송이 되었다. 2002년 8·15민족통일대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북측 예술단의 무용 공연이 SBS에 의해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었고, 아시안게임 응원단으로 온 북측 예술단의 공연도 있었다. 또한 남북 공동으로 평양에서 개최된 6·15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남측의 예술단 공연이 있었으며, 곧 이어 서울에서 남북 공동으로 개최될 광복 60주년 기념행사에서 북측의 예술단이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8·15 광복절을 전후로 남측의 예술단이 평양에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이 6·15선언을 계기로 남북문화예술교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크게 보면 민족화합이라는 교류의 제 기능을 찾아가고 있으며, 기계적 상호주의에서 포괄적 상호주의로,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일부 예술가만 참여하는 한정된 레퍼토리의 대공연 중심에서 많은 예술가가 참여하는 폭 넓은 레퍼토리의 다양한 편성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리고 방송국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점도 큰 특징 중의 하나이며, 많은 공연이 텔레비전을 통하여 남북에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이 되어 그 효과를 배가 시켰다.

그렇지만 남북의 정치적 환경이 교류를 활성화시켰지, 교류가 남북의 정치적 환경을 변화시켰다고는 말할 수 없

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정치 우선주의 내지는 정치 연속적인 교류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남북문화예술교류의 인프라 구축에 관한 관심과 논의는 뒤로 한 채 이벤트 중심으로 흘러 버린 아쉬움도 남겼다. 한편, 문화예술교류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경제지원과 교류를 통한 북한문화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남남갈등이라는 역기능적인 면을 초래하였고, 일부 행사는 한건주의와 상업주의가 뒤범벅되어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즉, 긍정적인 면 못지 않게 남북문화예술교류가 정치 행사의 들러리 역할에 그치거나, 돈으로 이루어지거나, 체제 선전용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교훈도 동시에 주었다.

### 진정한 남북음악교류를 위하여

진정한 남북문화예술교류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모순된 조건과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전에 진행된 교류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거기서 도출된 많은 문제점을 풀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마치 다차원적인 방정식과도 같은, 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 중의 하나가 바로 '남북음악교류'의 개념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남북음악교류'라고 하면, '이벤트적인 성격을 띤 좁은 의미의 교류'와, '기계적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교류', '북한과의 직접 교류'를 생각한다. 즉, 상호교환 방식에 의해 남한 사람이 북한에서, 북한 사람이 남한에서 직접 행한 음악회를 일반적으로 '남북음악교류'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교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벤트적인 성격을 띤 좁은 의미의 교류'에서 '넓은 의미의 교류'로, '기계적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교류'에서 '포괄적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교류'로, '북한과의 직접 교류'에서 '간접 교류까지'로 그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의 교류란 '서로 섞이는 것'이다. 교류의 개념을 넓은 의미로 보면 그 대상의 폭도 넓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류의 정신과 목표·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실황 연주회적인 성격을 띤 교류만 교류가 아니라 남북이 서로 섞이는 넓은 의미의 교류로 그 개념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남북음악교류에



‘이벤트적인 성격을 띤 좁은 의미의 교류’에서 ‘넓은 의미의 교류’로, ‘기계적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교류’에서 ‘포괄적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교류’로, ‘북한과의 직접 교류’에서 ‘간접교류까지’로 교류의 개념이 바뀐다면 남북음악교류의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쉽고, 실천하기도 용이하며, 또 효과적인 교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Effectively

앞서 해야 할 일 즉, 서로를 알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신뢰구축 같은 일련의 작업도 교류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음악 자료의 교환, 중장기적인 인적 교류, 남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 소프트웨어 개발과 통일 교재의 개발 등도 이에 포함된다.

포괄적 상호주의 원칙이란, 상호주의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교류의 정신과 목표와 목적에 맞추자는 것이다. 현재 음악교류를 포함한 남북교류의 장애물 중의 하나가 상호주의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데에 있다. 즉, 물물교환과 마찬가지로 1:1로 이것을 주면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기계적 상호주의 원칙을 바라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남북교류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제적 차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지난 세월, 상호 다른 체제 등을 고려한다면 기계적 상호주의를 고집하는 일은 남북교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따라서 기계적 상호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 상호주의 원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이익이고 동시에 우리 민족의 이익일 것이다.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흔히들 남북교류라고 하면 북한과의 직접교류만을 생각하는데, 조총련을 포함하여 해외에 살고 있는 친북한계 동포들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은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겠지만, 분단이라는 공간 속에 살고 있는 남과 북의 주민들과는 달리, 같은 공간에서 나뉘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에 대한 생각이 더욱 더 간절할 수밖에 없다.

특히 조총련 계열의 음악인들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사회주의 예술을 하고 있다는 점, 우수한 음악인들이 많다는 점, 남북을 모두 잘 알고 있다는 점, 이미 ‘남북화합의 음악제’를 여러 차례 개최 해 보았다는 점, 현재 북한에서 꺼려하고 있는 인적교류가 가능하다는 점, 교류의 참 뜻을 살릴 수 있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의 직접교류가 바람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론적인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이 ‘이벤트적인 성격을 띤 좁은 의미의 교류’에서 ‘넓은 의미의 교류’로, ‘기계적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교류’에서 ‘포괄적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교류’로, ‘북한과의 직접 교류’에서 ‘간접교류까지’로 교류의 개념이 바뀐다면 남북음악교류의 한계에서 벗어나기가 쉽고, 실천하기도 용이하며, 또 효과적인 교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 진정한 남북문화예술교류를 하기 위한 답은 결국 그것을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